

신안군 섬 지역 규제 개선 팔 걸었다

행안부 위원회·여객선사 간담회 여객선 출항통제 시제 완화 등 제안 정주 여건 개선 27건 발굴 건의도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선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6개 연안여객선사가 뜻을 모아 한 자리에 모였다.

신안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여객선 출항통제 시제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남도,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상에서의 시제 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선박 출항통제의 시제 기준은 1972년 운항 가능 시제를 1km로 제한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안된 상태이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선박 항해용 설비 기준이 높아져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들이 많고 항해 기술 또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시제 제한인 1km가 최선인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현재 시제 규정에 대한



지난 9일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남도,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신안군 제공>

정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간담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남해고속 뉴올린호에 승선해 레이더 등의 장비를 확인하는 등 실제 여객선 운항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운항관리센터를 찾아 실제 시제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절차 등을 점검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한국섬진흥원과 진행한 섬 규제 현장 간담회에서도 동일 안건을 건의하였으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섬

지역 정주 여건을 위해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 특히 섬 지역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인권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며,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다"라며 "신안군의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경찰 선도심사위원회

소년범 5명 훈방·즉결심판

목포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목포경찰서 예방관에서 '24년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청소년 지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경미(법정 형에 벌금형이 있는 범죄)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감경 등 맞춤형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지역 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경제·심리적으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생활·법률·치료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년범 5명에 대해 피해정도, 변제·합의·재범 위험성·선도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 다각도로 검토해 훈방 4건, 즉결심판 1건으로 결정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도를 통해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치안 활동을 구현해 나갈 것과 관내 위기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업무를 통해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진도군민들이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보건의소,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삶의 질 높이기

진도군 보건의소가 최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취약계층에 검사, 검진,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내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인 '마음은 청춘'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 통합의학 치료, 차음명상과 경음악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김미란 진도군 노인건강과장은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울·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무안군, 신혼·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기간 7년·10년으로 늘려

무안군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봉성 군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면서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군은 보건복지부와도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 달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대 3

년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무안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7년 이내)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20일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갈치낚시 명당' 영암 삼호 앞바다 개방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영암군이 오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2일간 갈치낚시 장소로 널리 알려진 HD현대삼호 앞바다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갈치낚시 장소 개방은 어민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영암군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조업 금지지역을 한시적으로 열기로 한 것이다.

영암 갈치낚시는 낚시대 전해지는 목직한 손맛과 들어 올릴 때 불빛을 튕겨내는 겨울 같은 갈치의 자태, 회와 구이에서 조림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맛은 그간 가을의 맛과 맛으로 낚시인들의 마음을 울려왔다.

부둣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영암 HD현대삼호 앞바다는 가을철 갈치낚시의 명당으로 날이 더 할수록 그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낚시 장소 개방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갈치잡이 배 13척의 구명설비 비치 여부 등 안전점검을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마쳤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영암의 멋진 야경 속에서 전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갈



산상 갈치낚시.

치 손맛과 음식맛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고액답례품 발굴 박차

내년부터 상한액 상향 대비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액이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액답례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한액이 확대되는 만큼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좀 더 이색적이고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고액기부자들이 답례품으로 해남사랑상품권을 선택하고 출신 마을에 상품권을 재기부한 사례도 응용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기부권을 답례품

화하기로 했다.

금액별로 마을경로당 에어콘 및 안마의자 설치, 마을 잔치, 보육원 기부 등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해 기부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선보일 고액 답례품들은 오는 9월 답례품 추가 모집을 거쳐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답례품 아이디어 제안,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재기부권 뿐만 아니라 여러 고액 답례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